금남로사진관 무거운 분위기 날리는 시골가게 형형색색 패션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옷 가게. '패션 아울렛'이라는 간판 아래로 화려한 원피스가 내걸려 있다.

고개를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었다. 빨갛고 노랗고 꽃무늬에 주름 패턴까지. 원색에 가까운 원피스에 저절로 눈이 향한다.

간판에 적힌 '순수 5000'이라는 문구에 굉장히 저렴한 옷인 게 분명하고, 화려한 색과 함께 확 파인 목선과 민소매가 굉장히 편하고 시원해 보인다.

화려한 드레스들이 하늘 위에서 춤추고 있는 듯하다.

여느 시골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옷이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옷을 걸어 놓은 가게 주인장의 독특한 진열법에 더 시선이 모인다.

무더위와 함께 장마와 태풍으로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던 이번 여름. 눈으로만 봐도 시원하고 화려한 옷들의 향연에 살짝 미소 지어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적극행정 모범사례 표창 대상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봉사단S' 회원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가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60세 이상 강사로 구성된 '미디어봉사단S(Senior)'를 운영해 노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노년층의 미디어 활용 격차와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13년 동안 운영돼 온 봉사단은 스마트폰·소셜미디어 활용, 영상제작 등 시니어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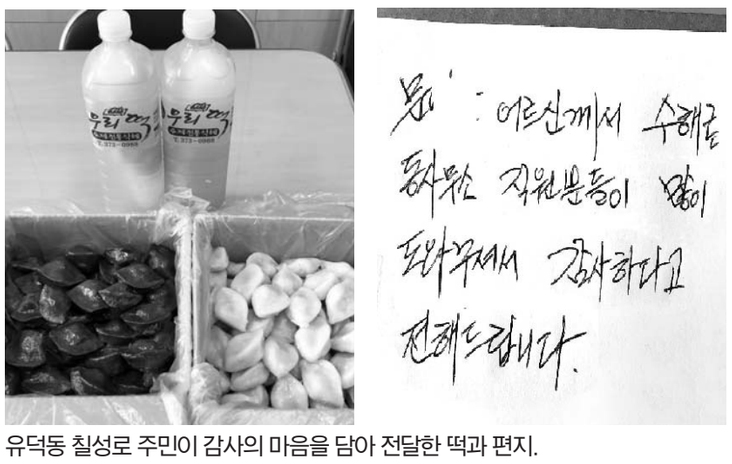
매년 11월 미디어봉사단 양성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을 수료한 이는 누구나 봉사단 회원이 될 수 있다.

박대식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미디어봉사단S의 울림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전달되어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며, "미디어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 2막을 펼치고 싶다면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기초수급자 수해피해 주민 "이제는 보답하고 싶어요"

유덕동 주민센터에 감사 떡·편지 전달



유덕동 칠성로 주민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떡과 편지.

수해피해 주민이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 유덕동 주민센터에 감사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편지 한 장과 떡상자를 전달했다.

편지와 떡은 유덕동 칠성로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A(여·82)씨가 전달했다. 그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집 전체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주민센터는 동 직원,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A씨 집을 찾아 침수된 집안을 정리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사 제거, 세탁 지원, 전기 복구, 수리활동 등을 도왔다. 어르신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 보일러·도배·장판 등을 교체하기도 했다.

A씨가 보내 온 편지에는 "수해로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백기남 유덕동장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역과 손잡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강민주씨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합격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강민주(23)씨가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의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올해 2월 졸업한 강씨는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2급 이상, 총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들과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경쟁을 펼친 끝에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강씨가 유일하다.

강씨는 1학년 때부터 동신대의 취업 사관학교 프로그램인 '대정드림'과 '대정스마일'에 참여해 토익 점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등 지원 자격 요건을 갖췄다. 또한 독서클럽, 자기주도학습, 방과 후 학습인 동신반딧불, 학과 실험실 체험, 일본 기업탐방, 유럽 및 대만 해외연수, 산업체 현장실습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이락승 백상주택건설 대표, 광주 112호 아너 소사이어티

이락승 (주)백상주택건설 대표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112번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④:00 2020 메이저리그 〈뉴욕메츠 : 토론토〉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불후의 명곡(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00 12 MBC 뉴스 25 동해수호대 55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집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녕 우리말 55 UHD 숨터(재)		2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포비든앨리(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00 브람스를 못 보셨나요?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퀴즈 위의 아이돌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특선다큐 스파이 야생 대탐험(재)	20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35 개는 훌륭하다	30 백파더 확장판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나 혼자 산다 스핀오프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TV쇼 진품명품(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통합뉴스룸 ET(재)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3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히어로 슈퍼잭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뽀로로 동화나라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픽시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09:30 명탐정 피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14:45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야옹멍멍 귀여워2
17:30 로빈 후드
17:45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아시아 명산기행
-인생에 한번쯤은 랑산, 황산〉
21:30 한국기행
〈야외에서 하룻밤 1부
저 푸른 언덕에는〉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음 7월 27일 庚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두각을 드러내게 된다. 48년생 필승의 신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다. 60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2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84년생 향상 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96년생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6

丑 37년생 차원을 달리하는 성대함이 보이니 잘 활용해 보자. 49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61년생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보일 것이니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73년생 형세를 좌우할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 85년생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자. 97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3, 70

寅 38년생 성국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50년생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겠다. 62년생 실현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자. 74년생 분명한 성과가 도출 되겠다. 86년생 의심나면 다시 보아야 할 때다. 98년생 관리가 부실하다면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5, 71

卯 39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51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작용할 것이니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63년생 판국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75년생 불합리함을 배제하고 발전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87년생 대상을 넓히고 다양하게 섭렵 하자. 99년생 열과 성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59

辰 40년생 진취적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52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무난함을 인식해야 하느니라. 64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라. 76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느니라. 88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00년생 크고 작은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운이니라. 행운의 숫자 : 26, 60

巳 41년생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대목이니라. 53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65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자. 77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89년생 애매하다면 판단을 보류하자. 01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붙잡지 말자. 행운의 숫자 : 36, 75

午 42년생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54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니라. 66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78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90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02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 94

未 31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43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55년생 전방위적인 정세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67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게 하리라. 79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15, 86

申 32년생 너무나 비슷비슷 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44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56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68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80년생 실리가 따를 것이다. 92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09, 52

酉 33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45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57년생 함께 한다면 충격을 완화 할 수도 있다. 69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81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93년생 우연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51

戌 34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46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로다. 58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 되어야만 한다. 70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에 이른다. 82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94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84

亥 35년생 시비를 가리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47년생 너무 경직 되어 있다. 59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71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83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95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9, 77